

이청준 『이어도』에 나타난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의 치환 양상 연구

서형범*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이어도』의 제의서사구조와 서사정보의 신뢰성
- III. 제의서사와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의 치환
- IV. 결론

【국문초록】

이청준의 『이어도』는 천남석 기자의 죽음을 둘러싼 선우현의 탐색의 서사를 기본구조로 사용하면서 이어도라는 비실재하는 섬에 대한 서사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 인물인 양주호를 정점에 둔 유사제의서사를 만들어 낸다. 소설의 시작 단계에서 초점자의 기능을 수행하던 선우현은 빈틈없는 제의서사로 천남석의 실종을 의미화하는 양주호를 통해 천남석이 ‘이어도 제의’의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우현은 천남석을 대신하여 이어도 제의가 계속되는 데 필수적인 ‘희생제물’의 자리로 옮겨짐으로써 전언자로서의 객관적 거리를 상실하고 ‘이어도 제의’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서사전개는 양주호가 제공하는 이어도 관련 서사 정보의 밀도와 신뢰도가 선우현이라는 전언자를 초점화자로 전환시키는 과정과 겹쳐진다. 그리고 선우현은 탐색의 서사에서의 서술행위자에서 제의서사의 서사행위자로 급격히 자리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기능의 자리바꿈은 독자의 서사 정보 판단을 대신하여 사건에 관여하였던 선우현이 독자의 시선에 드리워지는 자리, 곧 초점화자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양주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호의 이어도의 서사는 제의가 지닌 순환성과 완결성을 구축하도록 완성되어 소설의 결말을 향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천남석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선우현은 다시 탐색의 서사의 관찰자-전언자로서의 서사기능으로 돌아 오게 되며 이 지점에서 양주호의 유사제의 서사는 본원적이고 초월적인 완결성에 균열이 만들어지게 되어 제의서사로 종결될 수 없도록 작품의 의미가 재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어도』는 천남석-양주호에 의해 구축된 제의서사가 선우현-천남석에 의해 진행되는 탐색의 서사와 겹쳐지면서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의 본질에 대한 잠언적 성찰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서사구조의 복잡성을 지닌 작품이라 하겠다.

주제어 : 이청준, 이어도, 서사정보, 서사기능, 제의서사, 서사기능치환, 초점화

I. 서론

이청준의 『이어도』는 허구적 서사공간을 제의공간으로 상정하여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빚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일상 삶의 공간 내부에 혹은 인접하여 형성된 몽환적이거나 환상적이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서사공간을 배치하고 이 두 공간 사이에 자리한 서사주체로 하여금 두 공간을 넘나들면서 일상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제의적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작품은 실재의 ‘섬’과 ‘파랑도’ 또는 ‘이어도’로 불리는 부제의 ‘섬’이 대립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의 설정에서부터 ‘일상-비일상’의 혹은 ‘익숙한 것-원형적인 것’의 신화적 대립구도가 마련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청준의 이른바 ‘이어도’ 계열 작품들을 분석해 왔던 소중한 성과들이 축적될 수 있었다 하겠다.¹⁾

1) 김혜영은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 방식 연구-이청준의 『이어도』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학』 48호, 한국언어문학회, 2002)를 통해 이청준의 『이어도』가 환상

본고는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 위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서사 구조의 특징을 두 개의 서사 공간을 연결하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탐색의 서사의 주인공으로서 지니는 공통의 행위 양상을 제의서사구조로 해석해 온 기존의 연구를 반성적으로 되짚어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 작품을 제의서사구조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서사구성요소의 특징들을 작품 속의 사건이 지닌 제의적 성격으로부터가 아니라 인물들이 지닌 서사적 기능, 곧 초점자-초점화자-서사정보제공자 등의 서사적 기능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해명하는 데는 사건의 내용적 특징 못지않게 사건을 구성하는 서사구성요소들의 기능을 해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경우, 현실 삶의 공간에 자리한 독서행위주체가 스스로를 텍스트 내부로 끌어들여 해석적 독서 과정을 성찰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데

의 담론을 구성하는 근대소설 일반의 대응적 담론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논증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천남석을 중심으로 둔 대응의 담론의 구조를 살피는 데 그칠 뿐 그것이 진술방식을 통해 어떻게 서사 구조화되는가를 규명하지는 않았다. 한편 박미란은 『이어도, 탈존하는 실재의 섬-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 과정을 중심으로』(『한국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에서 정신분석의 분석자와 피분석자로 인물의 역할을 분류하여 서사진술의 기능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이들의 관계를 분석자-피분석자로 환원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양주호를 해석하였다. 장소진은 『사실적 탐색과 비약적 인식의 역학-이청준의 『이어도』를 대상으로』(『어문연구』 32권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에서 ‘이어도’라는 대상을 사이에 둔 두 주체의 서사행위를 탐색과 전복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서사 전개에 겹침과 풀려남에 주목하여 서사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안과 밖의 분리된 인식을 결합하려는 통합적 세계인식지향으로 이 작품을 해석한다. 조명기의 경우,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문학회, 2010)에서 반성적 가치를 지향하는 로컬리티 연구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로컬의 낙원의식을 확증하기 위한 서사행위주체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춰 이청준 소설의 ‘섬’이 지니는 고립성을 의미화하고자 하였다.

허구적 서사공간²⁾이 간접적인 매개를 제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 공간이 제의적 성격을 지니는 허구적 서사공간에 의해 본질적 의미를 획득하도록 구성되는 이청준의 작품들을, 일종의 ‘희생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춰 해석해 온 기존의 연구 시각은 분명 소중한 것들이다. 본고는 이에 더하여 서사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전언자로서의 초점자가 초점화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서사진술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개별 작품들의 주제 혹은 메시지를 해석하게 되는 계기들이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진술 방식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서사의 의미를 확정해 나가는 일련의 독서 과정에 대한 이론에 기대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³⁾

기존의 연구들은 『이어도』의 천남석처럼 ‘희생제물’로서 기능하는 인물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희생제물’이 지니는 의미 혹은 代贖의 맥락을 드러내는 데 유효하였으며, ‘이어도’와 같은 환상적 공간을 소설에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환상 공간에 대비된 일상 공간의 왜곡과 허구성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어긋남이 없었다. 또한 ‘희생제물’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이러한 ‘이어도’ 계열 작품들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들의 양립을 설명하는 데도 어느 정도 유용한

2) 실질적으로 서사물 자체가 허구적 서사공간을 안출하여 서사를 펼쳐 보인다는 점에 서는 서사물의 서사공간은 그 자체 허구적이다. 다만 본고는 서사물 내부의 ‘현실성’, 곧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비일상적이고 몽환적인 ‘허구적’ 또는 ‘초월적’ 공간에 의해 삶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다양한 현실 삶의 실질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는 서사구조를 전제로 할 때의 ‘허구적’ 성격을 가리킨다.

3) 텍스트의 서술자에 의해 부각된 초점화자는 독자가 수행하는 실제 독서 과정에서 독자의 시야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포착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초점화자를 따라 텍스트 해석에 참여하게 된다(S-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 1995, pp.180-182 참조).

시선을 제공한다. 곧 ‘독자들의 초점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희생제물’의 서사적 기능에 주목하고 구조적으로 작품을 대하고자 할 경우와, ‘희생제물’에 대한 ‘감정이입’ 혹은 ‘동화’로 이끌어 개별 서사의 자기화를 독법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서사의 실제 전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천남석’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작품의 완성도나 서사적 완결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연구자의 시선이 다수 확인되는 것도 본고는 ‘희생제물’에 초점을 맞춘 서사분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희생제물’을 ‘제단’에까지 이끄는 존재, ‘희생제물’로 하여금 ‘자기 발로’ 혹은 ‘무엇인가 취하여’ ‘제단’에 오르게 이끄는 존재, 그리하여 ‘희생제물’의 ‘희생’을 代贖으로 의미화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서사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본고가 새롭게 시도하는 접근 방법이다.⁴⁾ 그간의 연구들은 ‘인물’로서 이들을 취급하였고 그들이 드러내는 ‘성격’ 곧 한 사람의 인물로서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와 언어를 바탕으로 이들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⁵⁾

4) 이상우의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초점화와 담론을 중심으로』(『한국문예비평연구』 13, 한국문예비평학회, 2003)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이어지는 선행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이 논문의 경우 초점화자 개념을 서사행위주체 및 서술주체와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진술체로서의 소설 언어 분석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는 천남석과 선우현, 양주호 세 사람이 서로를 초점화하고 초점자로서 서사정보를 제시하는 진술방식 분석함으로써 제의서사와 탐색 또는 추리서사의 병치와 접합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5) 위 이상우의 논문 또한 이런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을 ‘祭儀’로서 살펴 본 장양수의 『이청준 중편 『이어도』의 무속적 해석』(『새얼어문논집』6, 새얼어문학회, 1993) 또한 제의라는 서사구조를 포착했음에도 실질적인 의미해석은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지향한다. 이런 경향은 비평적 저작인 서정기의 『노래여, 노래여-이청준 작품 속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작가세계』4권 3호, 세계사, 1993)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달리 ‘희생제물’의 옆에 서 있는 존재에 잠정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기능적 명칭을 부여하여 이들의 서사적 기능을 살펴보려 한다.⁶⁾ 제의서사구조를 서사 속에서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초점자-초점화자의 진술 태도를 통해 서사적 기능의 치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의서사구조로 이루어진 『이어도』의 희생제의적 서사가 제의가 지닌 영원성과 순환성을 확인하고 인간 삶을 초월한 가치를 서사를 통해 확인하는 데로 향한다는 해석이 지닐 수밖에 없는 순환논법을 극복할 수 있는 서사적 균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탐색의 서사와 제의서사가 병치되는 『이어도』의 독특한 서사구조가 실제 삶의 공간이 지닌 개별성과 다변성, 중층적 관계 양상과 의미의 복잡성을 제의가 지닌 추상적이고 환원적인 완결성으로 통합하려는 제의서사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데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의 치환이 주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6) ‘인물’로서 취급한다는 것은 해당 인물의 ‘성격’이라 불릴 수 있는 전형적인 행위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장인물로서 취급할 경우, 그의 외양이나 언행 등이 그 인물을 향한 주변 인물들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 나타남으로써 인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는 서술자에 의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서사정보를 ‘해석된 것’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서사가 실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반면 ‘기능’이나 ‘역할’로 취급한다는 것은 ‘인물’의 인격성을 팔호 안에 넣고, 그가 사건 속에서 주변 인물들과 맺는 ‘관계’를 추상화하여 기능적으로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접근방법은 특정 ‘인물’에 대한 ‘가치판단’을 멈추고 그의 역할이 서사 속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는가를 텍스트 내부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과도한 추상화 또는 구조화로 인해 개별 작품이 지닌 고유성을 훼손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유형의 서사물들이 보여주는 구조적 공통점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해석적 독서를 행하는 독자에게 포착되는 텍스트의 진술방식을 살피는 데 더욱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II. 『이어도』의 제의서사구조와 서사정보의 신뢰성

1. 제의의 서사화와 제사장의 기능에 대한 서사적 분석

‘제사장’은 제의의 초입에서는 희생제물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희생제물을 인도하여 제단에 오르게 한다. 그러나 제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희생제물은 제의가 기리고자 하는 절대적 존재와 동일시되며 동시에 제의에 참여하는 제단 아래의 모든 이들을 代贖하는 숭고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제사장보다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제의의 마지막에서 제사장은 희생제물이 완벽한 代贖을 행하였음을 공포함으로써 제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번 제의를 위한 준비에 다시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은 스스로 제의를 주관하고 제의 전반의 맥락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결코 제의의 ‘전면’에 혹은 제단 아래 모인 이들을 주목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의의 주인공이 아닌 ‘조력자’ 혹은 ‘안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장’은 필연적으로 제단 아래 모인 이들의 주목을 피할 수 없다. 그에 의해 모든 의례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자신을 향한 이들의 주목을 숨기기 위해 짐짓 자신도 제의에서 생겨나는 낯선 일들에 당황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스스로 낯선 상황을 만들어 내어 제단 아래 모인 이들과 자신의 자리의 높이를 맞추려는 제스처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취하는 이러한 제스처는 실제로는 제의에 대한 정보를 장악하고 제의의 의미를 확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는 제사장의 권능을 가려주는 기능을 지닌다. 제의를 앞에 두었을 때 제사장만큼, 제의가 기리고자 하는 초월적 대상을 제외한다면, 물론 당연히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기에 제외될 것이지만, 제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사장 또한 ‘인간’이기에 그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제 의의 의미’가 완결적이고 무결점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 결과 제의는 구조적으로 균열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초월자를 대신하여 제의의 의미를 확정한다는 데서 이 균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청준의 『이어도』는 이러한 ‘제사장의 서사’가 지닐 수밖에 없는 서사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인물과 탐색의 서사를 구축하며 확정된 의미에 균열을 만들어 내려는 인물의 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양주호화 선우현으로 초점자를 내세우는 이 두 서사는 ‘이어도’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이어도론’을 앞세워 상대를 마주하고 사건의 의미를 상호 보충적으로 제시해 가면서 두 개의 서사가 중첩되며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이 겹쳐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장의 서사구조’는 서사체의 정보들에 대한 서술자와 화자, 초점화자 및 서사행위주체들이 ‘이어도’를 자기서사사화하는 데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서사물은 서술자에 의해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이때 서술자는 비인격적 ‘존재’ 혹은 ‘자리’로서 서사물에 놓인다.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서술자에 의해 화자나 초점화자, 관찰자, 서사행위주체 등으로 명명될 수 있는 서사물 속의 ‘인물’들에게 나뉘어 역할이 부여된다. 서사물의 정보는 사건을 구성하는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 이는 다시 주체, 행위, 시공간 배경, 사건 사이의 인과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서사물의 구성 공식이라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둘러싼 정보들이 서사물에서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서사행위주체들은 이 정보들에 노출되는 정도와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되는 상황과 성격을 서사물 속에서 구현하며 사건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서사물에서 어떤 일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일어나며 그 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정보요소들을 각각의 서사행위주체들은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우현에게 초점을 맞춘 탐색의 서사가 『이어도』를 지탱하는 중심 서사를 이루면서도 양주호에 의해 제시되는 ‘섬 사람들의 이어도’ 전설에 의해 초점을 맞춘 제의서사가 사건의 핵심 의미를 구성하는 데 주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짜여짐으로써, 『이어도』는 선우현-천남석-양주호 세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이 두 개의 서사 모두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짜여진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탐색의 서사와 결합한 제의서사와 서사정보의 신뢰성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청준의 『이어도』는 표면적으로 ‘탐색’의 서사 구조를 지닌다. 물론 이 작품은 본격적인 추리소설 또는 탐정소설이 보여주는 파편적 정보의 종합과 재해석을 통한 드러냄의 서사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사체의 서사정보가 제공되고 이 정보가 독자의 해석적 독서과정에서 활용되는 가능성과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추리서사 보여주는 생략과 비약, 무심한 듯 던져 놓는 정보의 사후적 의미화 등의 방식들이 이 작품들에서도 매우 중요한 서사정보로서 기능하게 될 여러 장치들에 관여된다는 점에서 추리서사구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⁷⁾

7) 이와 관련하여 이청준 소설의 지적 탐색의 계기성에 주목하여 『이어도』의 언어적 형상화 양상을 분석한 백지은의 『이청준 『이어도』의 언어적 형식화 양상 연구』(『한국 문학회론과 비평』 30, 한국문학회론과 비평학회, 2006.03.)에서 언급한 “그의 소설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형태와 짜임을 주는 임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로 이루어진다”(p.128)는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진술을 본고는 서술자의 육화된 존재로서의 화자가 초점자로서 초점화자에 대해 진술하는 서사체의 기본 진술방식을, 서사의의미를 중층적으로 재구성하여 초점자가 초점화자로 읽혀지

서술자는 화자의 진술이나 초점화자를 향하는 진술들을 통해 주요 서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에게 서사정보의 제공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서술자의 위임을 받은 중심 화자의 진술이나 초점화자를 향하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서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독자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서사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좀 더 지닐 수 있다. 이와 달리 부차적 인물들에게서 제공되는 서사정보는 ‘발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정보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지표,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실은 그 사건이나 그 인물은 이런 내력을 지닌 인물이었다거나와 같은 표지를 지니지 않는 한 독자들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⁸⁾

이창준의 작품들은 일반적인 ‘탐색’의 서사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탐색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초점화자로서의 화자가 등장하여 서사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전언자로서의 역할을 맡으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야기가 다양한 인물들이나 상황을 거치면서 좀 더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초점화자로서의 화자는 어느새 서사 내부의 중심인물로서, 서사행위주체로서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서술자의 위임을 받아 서사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서사적 거리를

게 되는 독자의 해석적 독서과정으로 서사체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서사체의 ‘공백-틈’을 살피봄으로써 『이어도』의 제의서사구조가 지니는 서사의미화의 특이한 양상을 규명하려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 8) 추리 서사의 경우 이러한 부차적 인물들에게서 제공되는 ‘사소한 서사정보’를 초점화자로서 혹은 진술주체로서 등장하는 중심인물들 가운데 ‘탐정’의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가됨으로써 서사 전체의 열쇠로 기능할 수 있는 데까지 의미가 확장되고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인 서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사 전체의 의미를 확정짓거나 방향성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이러한 정보의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이 흔히 벌어지지 않는다(웨인 부스,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역, 한신문화사, 1987, p.210 참조).

확보하고 있던 초점화자는 서사행위주체가 됨으로써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회생하는 대신 좀 더 깊숙이 서사 속으로 들어가 내밀한 의미를 스스로 탐색하는 서사행위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독자들은 이야기의 시작 단계에서 화자에게 부여했던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⁹⁾로서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가 제공하는 정보들의 신뢰성을 차분하게 따져볼 수 있는 ‘독서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사행위주체로 역할이 바뀌어버린 화자가 제공하는 내밀한 ‘낯선 정보’들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청준 작품의 독자들이 지니기 마련인 ‘이성적 판단을 위한 거리두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이청준이 우리 문학에 등장하면서 줄곧 절대적인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힘이 이른바 ‘지적 탐색’의 소설 전통을 심화 발전시켜 가는 데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독자-초점화된 화자가 서사행위주체로 자리바꿈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신뢰도의 하락 또는 상황 변화를 마주한 독자들은 초점화자이자 서사행위자가 되어버린 인물이 제공하는 서사정보의 ‘낯선’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독서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 경우 독자가 초점화자이자 서사행위자인 ‘그’를 대신

9) 부스가 ‘서술자’라 부르는 존재는 narrator로서 우리말로로는 ‘화자’로도 번역되는 개념이다. 주네트가 논증했듯이, ‘서술자’는 ‘화자’와 구분된다. ‘화자’는 인격적 존재로서 서사체 내의 ‘인물’로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자리하지만, ‘서술자’는 개념이자 지점으로 서사체의 안과 밖을 매개하는 구조적 지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부스가 서술자의 신뢰성을 서술자의 존재 자체의 신뢰성을 가리키며 서술자가 텍스트 안에 존재할 수 있는가, 구조적으로 서술자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실제 발화자 또는 화자와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문제시하며 ‘신뢰성’을 다루었다면(위 주 8 참조), 본고는 ‘서술자’와 ‘화자’ 개념을 분리하는 주네트의 구조를 원용하여 ‘화자의 신뢰성’으로 개념을 다시 규정하고 이를 서사정보 제공자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로 바꾸어 적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사체 내부의 정보들을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를 서사정보에 대한 해석에 동원하는 독자의 해석 전략을 풍부하게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사건의 관찰자이자 정보의 해석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인 독서 과정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어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이 작품이 일반적인 소설 문법, 곧 사건이 중심이 되어 인물이 형상화되고 인물들이 지닌 욕망이 갈등을 빚어내는 구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화하는 대신, 이청준 소설의 일부 경향이 그러한 것처럼,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발화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써 서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해석되어야 할 ‘정보’로서가 아니라 해석된 ‘의미’로서 확정된 듯 보여진다. 그런 까닭에 이 작품의 ‘의미’는 이미 ‘주어진 것’처럼 서사에 자리하게 되고 해석적 독서과정은 이러한 ‘주어진 의미’를 전복시키는 서사의 특징적 전개 양상을 향하도록 이미 ‘운명처럼’ 자리하는 길을 따르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곧 ‘운명처럼’ 주어진 의미를 새로운 맥락에서 재의미화할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다시 가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독서과정은 이청준의 독자들 일반이 지니는 지적 취향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어도』를 이끌어가는 관찰자-전언자 선우현과 주요 정보 제공자인 초점자 양주호, 그리고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호명되지만 기억과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초점화자 천남석이 제의서사구조 속에서 지니는 서사적 기능이 서사전개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필 것이다. 초점자에 의해 초점화자가 제시되는 서사진술방식을 중심으로 이 분석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Ⅲ. 제의서사와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의 치환

1. 아포리즘의 순환논리-양주호의 ‘이어도론’의 균열

『이어도』의 양주호는 제사장의 역할에 충실하거나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이다. 그는 희생제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중심 초점화자에게 제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교육’하기까지 한다. 그가 수행하는 이러한 ‘정보 제공’ 또는 ‘교육’ 행위는 서술자를 대신하여 서사 텍스트 내부에 서사 정보를 드러내고 배열하며 때로는 정보 제공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대리자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중심 초점화자인 희생제물은 자신의 ‘서사적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희생제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책무를 마칠 뿐 실질적으로 서사의 의미를 확정짓고 서술자를 대신하여 기제공된 서사 정보들을 취합하고 의미를 확정하는 실질적인 주인공의 역할은 제사장에게 부여되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작품 첫머리에 마치 이 작품의 의미를 확정짓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다시 확인되어 처음과 마지막이 조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이 자리한다.

- ㉠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53면)¹⁰⁾

10) 이하 작품 인용은 『이청준 문학전집』 8권(열림원, 2008)의 면수를 기준으로 간략히 표시한다. 인용 앞에 붙인 ㉠, ㉡ 등의 구분 표시와 밑줄은 논의 전개에 의해 인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㉔ 어느날 아침이었다. 밤사이 바닷가에 불가사의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 있었다. 천남석이 마침내는 자기의 섬을 떠나 이어도로 갔을 거라던 양주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 양주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천남석 자신은 그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 끝끝내 그 이어도엔 도달할 수가 없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했던 이 섬을 거꾸로 이어도로나 착각한 것이었을까. 이어도로 갔다던 천남석이 동지나해에서 그 밤 파도에 밀려 홀연히 다시 섬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기이한 일이었다.(123면)

두 인용은 각각 작품의 첫머리에 진술된 이어도 전설에 대한 아포리즘과 천남석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전달하는 진술이다. 이 두 진술이 작품의 처음과 끝에 자리함으로써 이어도 전설이 다시금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동시에 양주호라는 초점화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인물의 ‘이어도론’이 균열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이 제시된다.

㉕은 서술자의 시선에 의해 독자에게 던져진 서사물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의 경계를 제시한다. ‘이어도’는 신비의 섬이고 그 섬은 실재하지 않는 것임이 확정적으로 제시되는 이 진술은 초점자도 초점화자도 부재한다. ‘이어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확정되는 형태이다. 반면 ㉔은 선우현의 진술이다. 초점자는 선우현이고 초점화자는 천남석과 양주호이다. 천남석은, 서사의 흐름을 통해 이어도 탐사선에 올라 뒀다가 실종된 기자임이 알려진 상태인바,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는 ‘이어도’를 부정하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이어도’를 만들어 냈던 것으로 양주호에 의해 ‘초점화된’ 채 ‘해석’된다. 그러나 양주호는 선우현에 의해 초점화되어 천남석에 대한 양주호의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그의 ‘이어도론’을 균열시키는 정보로 천남석의 시신이 섬으로 되돌아온 정보를 통해 반증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 작품은 총 일곱 개의 분절을 지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인 일곱 째

절은 일종의 후일담으로 제시된다. 선우현이 양주호와 마주서면서 팽팽하게 서사의 긴장을 유지시켜오다 결국 양주호의 ‘이어도론’에 포섭되고 ‘천남석의 여자’라 불리는 여인과 관계를 맺은 뒤 섬을 떠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런데 서사 전개 of 긴밀성과 긴장감의 유지를 전제로 볼 때, 일곱 째 절은 蛇足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미 양주호와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선우현은 관찰자로서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이어도’와 ‘관계를 맺은’ 형국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사족처럼 덧붙여진 일곱 째 절이 개입함으로써 선우현의 ‘패배’로 귀결된 듯 보였던 천남석 실종 사건을 둘러싼 양주호의 ‘이어도론’이 균열을 보이는 증거를 천남석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설의 처음에 진술되었던 아포리즘은 다시 한번 환기되어야 마땅한 것이 됨으로써 소설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낸다. 서사물을 관통하며 제사장으로서 막강한 ‘정보력’을 자랑하고 ‘해석력’을 통해 서사의 의미를 확정지었던 양주호가 돌연 무너져 내린 마지막 장면은 『이어도』의 서사가 그 자체로 다시 시작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¹¹⁾

2. 양주호 - 정보권력의 독점자로서의 제사장

『이어도』에서 양주호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천남석이 속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천남석이 탐사선에 승선하기 전의 행적과

11) 제의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연의 순환처럼 제의는 일정한 순환주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인간의 직선적 역사를 촘촘하게 분절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성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설쓰기 자체를 제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어도』는 ‘섬’과 ‘인간’을 대립시키는 기호적 상징체계 속에서 ‘인간’의 직선적 삶(죽음으로 귀결되는)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재의 ‘섬’을 향한 반복된 의미화(순환질서)의 대비를 기본 구조로 삼는 까닭에 제의의 반복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은 이러한 제의의 반복 순환적 특징이 서사 구조와 긴밀하게 결합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천남석의 ‘생각’(이라 양주호가 해석한 의견)을 선우현(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언자로서의 기능이 그 하나이고, 선우현을 전설의 섬 이어도를 환기하는 술집 이어도의 여인과 만나게 함으로써 선우현으로 하여금 양주호 자신이 ‘이어도론’을 승인하도록 이끄는 매개자로서의 기능이 다른 하나이다.

1) 전언자로서의 양주호

이 가운데 전언자로서의 양주호는 천남석이 이어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다는 자신의 판단이 만들어 낸 허구적 서사공간 속에서 제사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천남석이 결국엔 천남석 자신의 이어도론에 의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던 양주호로서는, 천남석의 죽음은 양주호 자신의 이어도론, 곧 부재하는 섬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이어도 전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아울러 양주호 자신은 그러한 인간들의 욕망을 가로막지도 부추기지도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살피는 ‘편집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하기에 양주호가 선우현(과 독자)에게 제공하는 서사정보는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양주호에 의해 꾸러진 새로운 서사공간에서 만들어진 정보들, 곧 양주호에 의해 해석된 천남석의 서사정보일 수밖에 없다.

㉔ “<...> 하지만 아마 그 천기자에게서 섬에 대한 무슨 확신 같은 게 엿보였지 않았을까 하는 선생의 생각은 쓸데없는 추측일 겁니다. 천 기잔 실상 평소부터 섬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확신이 있었다면 섬에 대한 기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섬 이야기 따윈 절대로 끝이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쪽이었을 겁니다. 천 기자가 이번 취재 여행을 청하고 나선 것도 오히려

그런 자기 확신을 위해서였지 않았나 싶어요.”(62-63면)

양주호는 선우현에게 천남석이 이어도 탐사 취재를 자청한 까닭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들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선우현에게는 천남석과의 만남에서 갖게 된 나름의 추측, 천남석이 이어도에 대한 섬 사람들의 전설을 증오하며 이어도를 부정하고 싶어 했었다는 기억과 겹쳐지면서 신빙성을 지닌 정보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더구나 양주호는 선우현에게 천남석에 대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선우현의 시선을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역시 양주호의 신뢰성 높은 전언자로서의 기능은 그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럼에도 위밀줄 부분과 같은 양주호의 진술은 천남석의 행적을 바탕으로 한 그의 ‘해석’일 뿐 천남석의 실제 의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주호가 지닌 전언자로서의 위치는 그의 진술을 통해 천남석이 이어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실제 그러할 것이라 여겨지게끔 만드는 것이다.

㉔ “<...> 천 기자는 막상 그가 바랐던 대로 이 세상엔 정말 이어도라는 섬이 실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난 순간에 오히려 그 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무서운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는 섬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그 섬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83면)

이에 더하여 양주호는 천남석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 들었다는 것을 실제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천남석을 서사행위주체로 상징하는 진술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드러낸다. 더구나 양주호가 천남석의 절망을 ‘황홀한 절망’(83면)이라 부르면서 천남석의 죽음의 삶이 끝이고 모든 것의 종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를 드러내는 것은 양주호가 『이어도』의 서사를 천남석이라는 한 인간의 죽음으로 종결될 수 없는 순환적 질서로서

과악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적 진술이 개입한다.

㉔ 양주호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게 있었다. 천남석의 죽음에 대해 처음부터 자기 나름의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77면)

서술자에 의한 진술이지만 이 진술은 선우현의 시선과 겹쳐진다. 따라서 이 진술은 서술자에 의한 객관적 해설이면서 동시에 선우현이 천남석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양주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아울러 드러낸다.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서술자에 의한 해설과 양주호에 의지하여 천남석의 자살로 추정되는 실종 사건을 추적하려는 선우현의 시선이 겹쳐지면서 양주호는 본격적으로 천남석의 실종 사건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전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양주호는 이어 다음과 같이 이어도 탐색 작전의 의미를 규정한다.

㉕ “이제 아셨겠지만 당신들이 찾아나선 이어도 역시 물론 그런 섬이었습니
다. 당신들은 당연히 섬을 찾아낼 수 없었지요. 따라서 작전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런 식의 실패로 해서 당신들은 이 섬사람들에게서마저 영영 우리 이어도를 빼앗아 가버릴 뻔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천 기자가 다시 살려낸 것이지요. 천 기자의 죽음이 우리 이어도를 지켜낸 것입니다.”(83면)

양주호는 천남석의 죽음이 섬사람들의 ‘이어도’를 지켜낸 것이라고 의미 부여한다. 천남석이 바다에 뛰어 든 행위가 천남석 개인에게는 ‘죽음’이고 ‘종결’일 수밖에 없으나 이어도 전설과 묶인 섬사람들에게는 이어도라는

비실재의 실재성을 증거하는 일종의 ‘殉敎’로서 의미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양주호의 위 진술의 의도이다. 이 진술은 양주호가 천남석과 양주호 두 ‘개인’ 차원에서 이어도 전설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이어도 전설을 가치롭게 지켜 나가는 일종의 ‘제의’를 행하고 있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어도가 실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황홀한 절망’ 속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천남석과 그러한 천남석의 최후를 예견하면서도 취재 여행을 허락한 ‘편집장’이라는 관찰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섬사람들을 대신하여 이어도 전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내부인의 자격을 또한 지닌 양주호는 이제 섬사람들의 환유로서 자리매김되는 형국이다. 선우현에게 양주호의 위 진술은 천남석과 양주호라는 두 개인으로 한정되지 않을 집단의 목소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선우현과 시선을 공유하고 있던 텍스트의 독자들로 하여금 양주호가 제공하는 서사정보의 신빙성을 한층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이라 하겠다.

2) 매개자로서의 양주호

한편 두 번째 기능, 곧 선우현으로 하여금 ‘천남석의 여자’를 만나게 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선우현이 ‘빈 손’으로 섬을 떠나게 만드는 매개자로서의 양주호의 서사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양주호는 표면적으로는 선우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천남석의 죽음이나 이어도 전설에 관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생각되는 다소 거친 행보를 보인다. 하지만 실제 그가 선우현에게 드러내는 태도는 천남석의 실종으로 인해 자리가 비워진 제단 위의 희생제물의 자리를 선우현이 물려받게 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선우현에게 ‘섬의 이어도

전설'을 들려주고 설득하려 애쓴다. 술집 '이어도'로 향하는 양주호의 거친 행보나 여인과 밤을 보내고 온 선우현을 대하는 냉소적이면서도 상대를 꿰뚫는 듯(선우현에게 받아들여진) 시선은 모두 선우현을 천남석의 대리물로 승인하려는 양주호의 '이어도론'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양주호는 천남석-선우현으로 이어지는 이어도의 제단의 희생물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된다.

㉔ 양주호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게 있었다. 천남석의 죽음에 대해 처음부터 자기 나름의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래서 우선 선우 중위를 일부터 이 '이어도' 술집까지 데리고 온 게 분명했다. 하지만 양주호는 이번에도 그뿐이었다. 선우 중위로부터 무슨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하기는커녕 천남석에 관한 일은 그쯤에서 아예 뚜껑을 덮어버리려는 눈치였다.(77-78면)

㉕ 선우 중위는 이자가 모든 걸 알 대로 다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천남석의 죽음뿐 아니라 간밤 동안 여자가 띄엄띄엄 털어 놓은 이야기들, 그녀의 내력이라든가, 천남석이 어떻게 그녀의 운명을 길들이고 있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그토록 여자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그는 알 만큼은 다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양주호 자신도 그러럼 여자를 가까이할 수가 있었다면, 그리고 어딘지 늘 천남석의 죽음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양주호 그 사람이고 보면, 여자나 천남석의 언동을 통해 그런 데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터이었다.(110면)

위 두 인용은 서술자에 의한 진술이면서 선우현과 시선이 겹쳐지는 진술이다. 선우현이 양주호에 계속하여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보다 천남석에 대한 정보를 양주호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호는 자신을 만나 천남석의 실종을 통보하는 것으로 본인의 임무를 한

정했던 선우현을 술집 이어도로 끌어 들여 결국엔 ‘여인’을 만나게 한다. 이러한 양주호의 행보는 선우현으로 하여금 양주호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것들을 접할 수 없게 만드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신성한 제의를 앞둔 금기들을 연상케 한다.

㉘ 그에게는 도대체 이 섬과 섬의 운명, 그리고 천남석의 죽음과 그의 여자에 관한 비밀,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115면)

위 인용들에서 알 수 있듯, 선우현은 이제 온전히 양주호의 구도 속에 자리한 천남석의 대체존재로 확정되고 만다. 선우현에게 양주호는 이제 천남석에 대한 정보를 의존하는 데 그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놓인다. 양주호에 의해 받을 들여 놓은 술집 ‘이어도’는, 이제 선우현에게는 천남석의 부재를 대신하여 천남석의 행보를 따라 가는 것을 승인하게끔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 된다. 그런 까닭에 선우현은 이제 양주호를 대할 때, 천남석 기자의 실종사건을 알려 주어야 할 민간인을 만나는 공보장교로서의 자리(곧 관찰자-전언자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천남석이나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비밀’의 한자락을 들춰 보여주는 밀교의 제사장을 대할 때처럼 조심스러운 태도(선우 중위가 마치 자신도 이젠 그 이어도를 눈앞에 보고 있는 듯 조심스럽게 끼여들었다.(119면))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선우현은 천남석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양주호가 장악하고 있는 이어도의 제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게 된다.

3. 천남석 - 제의의 희생제물에서 귀환한 초점화자로

이 작품 전체를 통해 천남석은 일관되게 초점화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선우현과 동승한 배에서의 천남석이나 양주호에 의해 간접 진술되는 천남석의 언행은 천남석의 목소리가 아닌 전언자의 목소리(와 해석)에 의해 제시될 뿐이다. 천남석에 대한 정보는 양주호의 ‘해석’과 선우현의 ‘관찰’ 사이에 놓여 해석적 독서의 틈을 만들어낼 뿐, 천남석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러하기에 그는 철저히 타의에 의해, 제의의 구조에 의해 제단에 올려 진 희생제물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양주호에 의하면 천남석은 일관되게 ‘이어도’를 부정한 인물이다. 그의 그러한 면모는 선우현의 관찰과도 썩 다르지 않다.

선우현에 의해 ‘관찰’되어 제시된 천남석의 모습은 ‘냉소적 회의’와 ‘혼돈의 흥분’ 사이를 오간다.

② 그는 과연 수색 작전 취재를 위해 배를 올라오고 나서도 파랑도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 작전 결과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싱거운 소리를 곧잘 했다. <...> 어떤 때는 아예 그 수색 작전 동기에 대해서마저 심히 회의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어도의 전설을 파랑도의 실제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당신들의 생각이야말로 전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아직은 가상의 존재에 불과한 그 파랑도가 이어도의 전설을 만들어냈을지 모른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그 역으로 이어도의 허구가 파랑도라는 또 하나의 허구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보다 설득력이 더하지 않을까요. 파랑도고 이어도고 아직은 우리 눈에 들어온 일이 없는 지금 형편에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가정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당신들은 파랑도보다 처음부터 이어도 쪽을 찾아나선 편이 더 동화적이지 않겠어요. 허구가 낳은 또 하나의 허구를 찾아나서느니보

단 차라리 첫 번째 허구에 해당하는 이어도 쪽을 찾는 편이 더 그럴듯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67-68면)

㉔ 그는 완전히 여유를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건지기 어려운 듯 느닷없이 그 이어도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이런 때 우리 조상들은 이어도라는 섬을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아마 폭풍에 배가 깨지고 나면 그 이어도로 헤엄을 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

너무도 진지하게, 정색을 한 어조로 섬을 저주하고 있었다.

“이어도라는 그 터무니없는 허구가 사람들을 무참하게 속인 거지요. 사람들은 이어도에 속아 죽음이 기다리는 바다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고도 속수무책으로 이어도만 찾다가 가엾은 물귀신이 되어가곤 했습니다. 선우 중위도 아시겠지만…….”

그는 부제가 확인되고 난 이어도의 위험스런 허구에 대해서 좀더 신랄한 비난을 계속했다. 그는 한사코 이어도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어했다.(69-71면)

양주호가 제공하는 천남석에 대한 정보는 온전히 양주호의 ‘해석’에 의한 것인 반면, 위 두 인용에서 볼 수 있듯, 선우현이 제공하는 천남석에 대한 정보는 선우현 자신의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천남석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냄으로써 인물로서의 실재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선우현이 ‘재현’하는 천남석은 ‘재현’ 자체의 간접적 구조로 인하여 선우현의 주석을 동반한 채 독자들에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 곧 선우현의 ‘기억’에 의해 ‘재현’된 까닭에, 비록 양주호가 제시하는 간접제시보다는 직접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여전히 천남석의 목소리 자체로 서사에 등장하는 것은 아닌 존재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재현’ 장면의 초점자인 선우현은 초점화자인 천남석에게 ‘냉소적 회의’와 ‘혼돈의 흥분’이라는 해석적 꼬

리표를 붙이고 그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고 그 꼬리표는 선우현의 ‘진지함’과 결합하여 서사정보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양주호를 만난 시점부터 선우현은 천남석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정보제공자로 양주호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천남석에 대한 선우현의 ‘객관적 기억’은 양주호에 대한 신뢰도의 확대의 간접효과로 인하여 천남석을 여전히 해석된 채 재현하도록 한정짓는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에서 천남석은 ‘인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또는 ‘해석’으로서 존재하는, ‘목소리’로서 존재하게 되며, 양주호가 재구성해 낸 이어도 유사 제의 구조 속의 희생제물로서의 피동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4. 선우현 - 탐색 서사의 관찰자에서 제의서사의 참여자로

실상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은 ‘발언 기회’ 혹은 ‘주어로 등장할 기회’를 얻은 인물은 선우현이다. 그는 실종 이전의 천남석에 대해서, 그리고 양주호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찰의 기록을 남기는 인물이다. 그런 탓에 선우현은, 천남석 실종의 원인을 ‘조사’하는 수사관은 아니지만, 그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신문사에 알리는 공보장교의 역할에 더하여 천남석이 자살했을 수도 있다는 자신의 추정을 뒷받침하거나 뒤엎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는 관찰자이자 전언자로서의 기능을 맡으며 서사에 개입하다. 그러나 천남석을 충실히 서사에 ‘재현’시켜야 할 관찰자-전언자로서의 객관적 거리가 양주호에 의해 제공된 천남석과 이어도에 대한 정보와 마주서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바로 앞 절의 인용 ㉠과 ㉡은 천남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선우현의 시선에서 ‘해석된’ 천남석이 모습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그는 과연 수색 작전 취재를 위해 배를 올라오고 나서도 파랑도의

실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나, “어떤 때는 아예 그 수색 작전 동기에 대해서마저 심히 회의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는 완전히 여유를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건디기 어려운 듯 느닷없이 그 이어도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너무도 진지하게, 정색을 한 어조로 섬을 저주하고 있었다.”, “그는 부재가 확인되고 난 이어도의 위험스런 허구에 대해서 좀더 신랄한 비난을 계속했다. 그는 한사코 이어도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어했다.”와 같은 대목은 선우현에 의해 ‘해석’된 천남석이 제시되는 전형적인 방식을 잘 보여 준다.

천남석을 ‘관찰’하는 선우현의 시선에 포착된 천남석의 상반된 두 모습, 그 중 이어도의 ‘신화’를 부정하려는 천남석의 태도를 선우현은 관찰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위 ㉠과 ㉡처럼 ‘해석된’ 진술의 형태로 제시한다. 냉정한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하며 탐색의 서사를 전달해야 할 관찰자이자 전언자로서의 선우현의 자리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선우현의 이러한 ‘흔들림’은 이미 양주호와의 만남에서 그 징조를 보였다.

㉠ 양주호가 잠깐 그의 거대한 몸집을 의자에서 들썩여 보였다. 그는 이 거동이나 생김새가 너무도 분명해 보이는 젊은 중위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긴장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다. 몸집이 큰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주호의 호인다운 미소가, 중위를 대면하면서부터는 그의 부수수한 볼수염에 가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56면)

㉡ 양주호는 벌써 중위가 말하려는 용건을 분명히 눈치채고 있을 텐데도, 웬일인지 그쪽에는 아직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57면)

㉔ 일부러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중위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담뱃불을 비벼 켜다. <...> 처음부터 중위가 편집국장을 찾은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주호의 태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았다. 그것은 이미 겉손이 아니었다. 중위는 기분이 언짢았다.(58면)

위 세 인용 부분은 모두 선우현이 초점자로 양주호를 초점화하여 진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선우현이 화자로서 기능하는 까닭에 양주호에 대한 선우현의 ‘해석’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진술주체는 ‘중위’이라는 주어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이 진술들이 선우현의 것이 아니라 서술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진술방식과 진술태도의 위와 같은 불일치는 이미 선우현이라는 인물이 결코 ‘객관적’ ‘관찰자’로서 일관되게 서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지표로 기능하며, 제의적 구조를 지닌 이 작품에서 선우현에게 맡겨진 전언자로서의 기능을 그가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해석적 독서를 위한 일종의 ‘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틈’은 천남석에 대한 선우현의 질문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 양주호에 대한 선우현의 해석과 맞물리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㉕ 이상한 일이었다. 양주호는 정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다. 천 기자의 사고 경위를 따지지 않는 이유를 그는 천 기자가 정말 자살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우 중위의 입장만 점점 더 편하게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중위는 물론 그 양주호의 말을 그대로 무심히 들어넘길 수가 없었다. 중위 역시 그 천남석의 죽음에는 처음부터 늘 어딘지 석연찮은 구석이 느껴져 온 터였다. 배에서도 그랬고, 전령선을 내려 이 신문사를 찾아볼 때도 그랬다. 그리고 이

속을 쪼아낼 수 없는 사내 앞에 공식적인 용무를 치러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실상 그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 대한 끝없는 의구가 맴돌고 있던 참이었다. 자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중위는 양주호 국장 앞에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되었다. 전부든 상상이나 추리만으로 사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 양주호 국장이 먼저 천 기자의 죽음을 자살로 추단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듯 방심스런 그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단정적이었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중위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61-62면)

위 인용 부분은 소설 전체의 거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미 이 지점에서 선우현은 자신의 관찰자로서 관찰 대상과 유지해야 할 거리 뿐 아니라 해석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실패한다. 이미 선우현은 양주호와 의 ‘관계’에 들어 선 형국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선우현은 “그런데 뜻밖에 양주호 국장이 먼저 천 기자의 죽음을 자살로 추단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듯 방심스런 그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단정적이었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중위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62면)와 같은 진술로 완전히 양주호와 ‘대면’하는 자리를 벗어나 양주호와 ‘대화’하는 단계로 나아가버린다.

이처럼 선우현은 이미 서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양주호의 정보를 ‘전달’하는 관찰자이자 전언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양주호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양주호의 구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마는 것이다. 선우현이 자신의 자리가 흔들림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양주호가 선우현은 양주호의 ‘이어도의 서사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다음이다. ‘천남석의 여자’라고 양주호가 명명한 여인을 만나는 술집 이어도에 들어선 순간 선우현은 천남석을 ‘대신’하여 양주호의 이어도의 제의에 받을 들여 놓는 형국에 자리하게 된다.

㉔ 선우 중위가 마침내 항복이라도 하듯 머리를 절절 내흔드는 시늉을 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양주호의 비약과 영감투성이의 열변을 껴다 보니 자신도 이제 제법 천남석의 자살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 얻어진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양주호를 가볍게 추궁했다.(120면)

위 진술은 서술자에 의해 제시된 진술이다. 사족처럼 덧붙여진 일곱 째 절의 바로 앞에 놓인 장면이다. 그런데 이 진술에서 선우현은 오롯이 천남석의 대체물로, 또다른 이어도 제의의 희생물로 마감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다시 말해 제사장으로서 양주호가 주관하는 심사사람들의 이어도 제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이 암시되는 진술이다. 심사람이 아닌 선우현조차 섬의 이어도와 마주서며 천남석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서사 진행, 그리고 그러한 서사 진행의 동력을 꾸준히 제공해 온 양주호의 서사정보의 힘에 균열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곳인바, 이 지점에서 선우현은 다 시금 소설의 처음 시작 지점으로 귀환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관찰적인 전언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다시 찾은 것이다.

5. 서사기능의 치환에 의한 제의서사의 재의미화

이제까지 「이어도」가 지닌 제사장의 서사와 탐색의 서사가 동일한 인물들을 통해 작품 속에 구현됨으로써 그들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해보았다. 「이어도」는 하나로 집중되는 서사에 의해 사건들이 통합되어 제시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해석될 수 있거나 심지어 상반된 해석의 가능성을 지닌 서사정보들이 한꺼번에 주어진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서사정보를 제공하는 초점자-초점화자로 기능하는 인물들이 서로 다른 서사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서사정보가 제시되는 지점에서 인물들에게 주어진 기능은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찰과 기록으로 구조화되는 서사체는 관찰 시점 및 상황과 기록 시점 및 상황의 분리가 전제된다. 회상의 서사라 명명할 수도 있는 이러한 서사체는 서사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지닌 존재가 실질적인 관찰자이자 기록자로서 서사체를 이끌어 가게 된다. 사건들을 관통하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는 관찰자나 기록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찰자나 기록자는 ‘객관적 거리’ 혹은 ‘서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확정해가는 독자의 독서과정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사의 중심인물, 곧 주인공 혹은 영웅으로 표현될 수 있는 중심점에서는 관찰과 기록을 위한 서사적 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 및 기록자는 끊임없이 서사행위주체들에게 묻고 대답을 듣고 관찰하고 추론하고 해석하는 이성적 탐색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 과정이 일단락된 후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격하고 관찰자는 기록자로서 다시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서사의 의미 해석 방향을 정향지우는 데 활용한다.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옮겨짐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차단과 해석의 결락이 서사의 의미를 잠정적으로나마 완결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찰과 기록의 서사가 지닌 이러한 양상이 이청준의 소설 구조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이 『이어도』에서는 서사의 관찰자-전언자인 선우현을 제의의 참여자-희생제물로 바뀌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서사정보의 집중과 해석의 권위를 부여받은 양주호가 제의서사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선우현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서사정보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서사적 거리’를 무화시켜버린다. 선우현은 양주호와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탐색의 서사에서 부여받은 관찰자-전언자의 기능을 잃고 양주호의 제의서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희생제물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제의 혹은 유사제의가 지닌 비밀상성은 관찰과 기록의 주체들에게 요구되는 철저한 자리지키기를 위해 요구되는 이성적 판단력을 정지시키는가 하면 직접 제의 또는 유사제이에 참여케 유도하거나 스스로 그 속에 뛰어들으로써 관찰자와 기록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이 마련되어 있다.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등등으로 자인하고 마는 이러한 ‘책임방기’는 새로운 차원에서 관찰과 기록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그 자리는 더 이상 사건의 ‘밖’이 아니라 사건 속에 마련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최초의 관찰자는 어느새 서사행위주체로 옮겨가 있게 되고 자신이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을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의 변화를 통해 인지하게 된 관찰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서사를 다시 구성하고자 제공된 정보를 해석하게 된다. 그런데 선우현은 일방적으로 양주호의 제의서사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된다. 바로 천남석의 ‘귀환’이다. 작품 전체에서 ‘목소리’로만 존재했던 천남석이 육신으로 등장함으로써 선우현은 다시금 천남석의 실종-죽음을 중심에 둔 탐색의 서사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주호의 유사제이는 순환성과 완결성이 훼손되어버리게 된다.

이청준 소설의 독자들은 관찰 및 기록자에 초점을 맞춰 텍스트를 소비하는 데 유리한 경험을 지닌 독자들이다. 이청준의 소설들이 지닌 지적 탐색의 여정이 독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해석을 위한 준비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자에 의해 초점이 맞춰진 관찰 및 기록자가 어느새 서사체 내에서 초점화자가 되어버린다. 독자들은 초점화자에 대한 관찰 및

기록의 서사거리를 읽어내기 위한 독법을 준비하고 텍스트와 만나는데 텍스트는 독자를 초점화자와 직접 마주세우는 것이다. 독자들은 관찰 및 기록자를 거쳐 제공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정보라는 범주에 넣어 두려 하는데, 초점화자가 된 관찰-전언자는 어느새 해석되고 주관화되며 경험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서사체는 어느새 등장인물들이 모두 자기 목소리만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버린다. 서사행위주체들의 목소리에 고른 시선을 안배하고 그 가운데 중심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듬어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기대와는 사뭇 어긋나는 이러한 서사 구성이 제의 혹은 유사제의 서사체의 복잡함을 가중시킨다.

한편 『이어도』라 이청준의 독자들이 지니는 지적 독서 과정에 놓임으로써 양주호를 중심에 둔 제의서사는 재해석 또는 반성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양주호가 이어도 전설이 섬 사람들에게 지니는 삶의 본질적 가치의 표상으로 기능한다는 자신의 믿음이 천남석의 실종-죽임이라는 사건에 의해 완벽하게 보증된다는 믿음, 그런 까닭에 천남석은 이어도 제의의 희생 제물로 해석됨이 마땅하다는 제의서사로 이 작품이 귀결되는 것은, 그 방향성이 분명한 정도만큼 해석의 저항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탐색의 서사가 다시 부각되고 선우현의 ‘복귀’가 주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양주호에 의해 강력하고 권위적으로 제시되었던 천남석-이어도의 유사제의서사는 선우현이 다시금 탐색이 서사에서 관찰자-전언자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지점에서 균열과 파탄을 보이게 되며, 이는 『이어도』를 ‘제의적 서사’로 일관하여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주요 균열-틈새를 만들어 내는 서사적 장치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이청준의 『이어도』는 비실재하는 환상의 섬에 대한 전설을 둘러 쓴 몽환적 서사로 구성되어 있고 천남석의 죽음을 둘러 쓴 해석의 다툼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희생제와의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 탓에 이 작품은 천남석의 실종을 둘러 쓴 의문을 풀기 위한 탐색의 서사로 시작되었으나 양주호라는 강력한 서사정보제공자의 등장과 관찰적 시선을 유지하지 못한 채 전언자에서 관여자로 서사 기능을 옮겨 수행하게 된 선우현의 행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이어도라는 가상의 섬을 둘러 쓴 순환적 이야기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천남석 개인의 죽음이 기실 ‘이어도’를 둘러 쓴 섬 사람들의 전설이 확인되고 계속됨을 의미하도록 서사가 귀결됨으로써 ‘이어도 전설’은 이어도의 실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주호는 천남석을 희생 제물로 삼는 가상의 유사 제의 구도 속에 천남석의 죽음과 섬 사람들의 이어도 전설을 재구성하여 선우현에게 제시하고 선우현은 객관적 거리의 상실로 인하여 양주호의 ‘이어도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사족처럼 덧붙여진 일곱 째 분절은 양주호라는 강력한 서사 정보 제공자가 구성한 이어도의 제의적 서사 구조가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균열을 목소리로만 존재하던 천남석의 육체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준다. 선우현이 확인한 천남석의 시신은 양주호가 섬사람들을 대리하여 이어도 전설의 진정성을 지켜 나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던 앞선 서사 전개를 전복시키는 지점으로 기능함으로써 순환적이고 제의적이었던 이어도 전설에 대한 앞선 담론들을 일거에 반성하도록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효과도 함께 지니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이어도』의 서사 전개 과정과 인물들의 기능을 제의 서사

구조로 살핍으로써 서사정보제공자의 기능과 치환에 대한 이론적 판단의 실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남석을 초점화자화하여 그의 실종사건을 추적하는 선우현은 서사의 초점자이자 전언자였다. 그는 작품의 서사 전체에 대한 강력한 서사해석의 권위를 지닌 또다른 초점자 양주호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초점화자가 되어 버린다. 그 결과 선우현이 양주호로 대표되는 이어도 제의의 희생제물로 자리를 옮겨 가는 서사의 방향과, 초점화자이자 전언자였던 본래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려는 선우현의 서사의 방향이 겹쳐지면서 기존에 이 작품을 제의서사의 전형으로만 바라보는 연구 시각을 반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우현에 의해 균열이 만들어진 양주호의 이어도의 서사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제의구조가 재확인되는 데로는 결코 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이어도』와 같은 성격의 제의성을 지닌 이청준의 저작들이 지니는 서사구조의 복잡성과 인물들의 관계맺기가 지닌 중층성을 해명하는 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유용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향후 이청준 소설이 지닌 담론의 복합성을 해명하는 데 제의적 서사 구조를 서사론에서의 서사정보제공자의 기능과 자리바꿈이라는 시각에서 좀 더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고가 취한 연구 시각은 이청준 소설을 향한 독자들의 ‘지적’ 독서행위의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구조적 ‘틈’을 서사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이청준의 소설 작품들을 향한 독자들의 지적 탐색의 독서 과정과 지식인 소설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통로를 발견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청준 문학전집』 8권, 열림원, 2008.
- 김혜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 방식 연구-이청준의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8, 한국언어문학회, 2002, pp.301-316.
- 박미란, 「이어도, 탈존하는 실재의 섬-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pp.373-389.
- 방영이, 「존재와 추리의 영상-『뽕소니 사고』와 『이어도』의 경우」, 『한어문교육』 3,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5.12, pp.137-146.
- 백지은, 「이청준 『이어도』의 언어적 형식화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03, pp.125-148.
- 서동수, 「시물라크르의 세계와 미시권력-이청준의 『이어도』」,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2001, pp.233-266.
- 서정기, 「노래여, 노래여-이청준 작품 속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작가세계』 4권 3호, 세계사, 1993, pp.108-126.
- 이상우,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초점화와 담론을 중심으로」(『한국문예비평연구』 13, 한국문예비평학회, 2003, pp.179-195.
- 장소진, 「사실적 탐색과 비약적 인식의 역학-이청준의 『이어도』를 대상으로」(『어문연구』 32권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pp.329-352.
- 장양수, 「이청준 중편 『이어도』의 무속적 해석」(『새얼어문논집』 6, 새얼어문학회, 1993, pp.179-201.
- 조명기,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문학회, 2010, pp.333-363.
- Booth, Wayne C. 이경우, 최재석 역, 『소설의 수사학』, 한신문화사, 1987.
- Genette, G., *Narrative discourse : an essays in method*, tr. by Jane E. Lewin, Ithaca : Cornell Univ. Press, c1985.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0.)
- Iser, W., *The Act of Reading*,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1978 [reprinted 1980].(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 Prince, G.,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ing of Narrative*, The Hague:

Mouton, 1982. (최상규 譯, 『서사학-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 지성사, 1988.)

Rimmon-Kenan, S.,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New York : Methuen, 1983. (최상규 譯, 『서사학-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 지성사, 1985;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of religious ceremony and the exchange of narrative function in Lee Cheong-jun's Ieo-do

Seo, Hyoungh-Bom

Ieo-do has the basic narrative structure that Seonwoo-hyoun has inquired into the reason of Cheon-namseok's missing accident. But Yang-juho, Cheon-namseok's superior at local newspaper company informed the narrative information that Cheon considered the island people's utopian story of Ieo-do as fabrication because he have leveled charged of escape from real living condition against people in island. So Seonwoo as a narrator and informant of narrative at starting point of narrative consider Yang as reliable informant of Cheon's past. But at the position of reader, Yang who are well informed of Cheon is not reliable because he does not informed the 'fact' of Cheon's past but the 'interpretation' of that. Later Seonwoo was able to realize that but at that time Seonwoo's narrative function exchanged from messenger or observer to the 'sacrificed offering' of Yang' pseudo religious ceremony of Ieo-do. Seonwoo's narrative function like this influence reader's reading and interpretation strategy of narrative and reliability of narrative information and informants.

Key Word : Ieo-do, Lee Cheong-jun, narrator, narrative informant, sacrificed offering, pseudo religious ceremony narrative structure, exchange of narrative function

서형범

소속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소 :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전화번호: 031) 249-9112 / 010-5442-9483

전자우편: hbseo@kyonggi.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